

우리 집에 어울리는 예술작품은?

작가미술장터 아트앤티움
'리얼-작가의 방'

9일~27일 신세계·아크갤러리

81명 460여점 감상
작업실 방문 기회도

일상생활 공간에 예술작품을 설치해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자. 관람객들이 작가들의 미술작품을 전시장과 작업실을 방문해 직접 감상하고 현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작가대 미술장터가 마련됐다.

작가미술장터 아트앤티움3 '리얼-작가의 방'이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와 아크갤러리에서 열린다.

작가미술장터 아트앤티움3 '리얼-작가의 방'은 작가들의 작품 관람과 소장 동시에도 할 수 있는 기획 전시다. 광주를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중견작가와 젊고 유망한 신진작가 총 81명의 460여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동시대 예술의 다양한 흐름과 함께 작가간의 교류와 상호관계를 통해 작가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했다.

특히 이번 미술장터에서는 관람객들이



▲이정록 작 'Tree of life'

◀박구환 작 'In full bloom'

전시작품 감상과 함께 작가의 리얼한 작업 현장을 엿볼 수 있도록 작가 작업실 지도를 만들어 작가의 작업실을 직접 방문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작가의 작품제작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관람하고 완성된 작품을 즉석에서 구매할 수 있는 '예술가의 향기(20일 오후 2-4시 전현숙 작가, 참가비 5만원)', 소망과 희망 메시지를 작가가 직접 그림과 글로 표현해 제작하는 '나만의 포춘 카드(13일 오후 2-4시 윤석문 작가, 참가비 1

만원)'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어 작품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전시를 즐길 수 있다. 작업실을 방문한 관람객에게는 아트상품을 무료로 준다.

또한 전시기간 중 작가와 미술 전문가로부터 무료로 1:1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홈 아트 컨설팅'을 통해 자신의 생활공간에 어울리는 작품을 상담받을 수 있다. 실제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에 맞는 작품을 가상 배치하는 이미지 설계 프로그램으로 작품 설치 후의 공간 변화를 미리 느껴볼 수 있으며, 실제 구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홈 아트 컨설팅 SNS 이벤트'를 진행해 전시장을 직접 찾지 못하는 관람객들도 참여할 수 있다. 자신의 거실 혹은 사무실 등 작품을 설치하고 싶은 공간을 사진으로 찍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하면, 사진으로 찍은 공간에 가상으로 작품을 설치해 현장감 있게 감상할 수 있다.

/이연수 기자



타라재이 작가

당신의 기억 저장해 드려요

작가 타라재이, 10월 한 달간 '타자기 버스킹'

메모리키퍼 송재영(이하 필명 '타라재이') 작가가 10월 '타자기 버스킹'을 통해 광주 곳곳에서 시민과 여행객을 만난다.

'타자기 버스킹'은 길에서 만난 시민과 차담을 나누고, 대화 중 한 문장을 타자기로 기록해 즉석에서 참여자의 기억에 영감을 얻은 새로운 문장을 지어 전달하는 기억보관소 프로젝트다.

올해로 5년차를 맞이한 메모리키퍼 타라재이의 기억보관소 프로젝트는 마치 분실물 보관소처럼 잃어버린 소중한 기억을 찾아주고, 잊고 싶은 기억은 말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떤가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그동안 참여자들이 기억보관소의 문을 두드렸다면 올해는 직접 만나러 가고 싶어 버스킹을 프로젝트에 접목시키게 됐다.

타라재이는 "타자기를 사용하는 이유의 한 글자 한 글자 소중히 기록하기 위해서"라며 "각박한 현실 때문에 지나간 기억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알게 됐고 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메모리키퍼가 된 이유를 설명한다. 작가의 필명인 '타라'는 티벳 설화에 등장하는 '고통의 강을 함께 건너 주는 이'를 뜻한다.

이번 버스킹을 통해 수집된 기억은 기억보관소에 보관되며 잃어버린 기억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디지털로 아카이브 될 예정이다.

타자기 버스킹은 12일 오후 3시 양림동 커뮤니티센터 소녀상 앞, 18일 오후 7시 금남공원, 24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구름다리, 31일 오후 3시 광주문화공원 김삿갓에서 만날 수 있다. /이보람 기자

마한·백제·신라 고분서 나온 금동신발 한자리

국립나주박물관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특별전

5년 전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에서는 완벽한 형태의 금동신발이 출토됐다. 길이 32cm, 높이 9cm, 너비 9.5cm인 금동신발은 바닥에 연꽃과 도깨비 문양을 새기고, 발등에는 용 모양 장식을 달아 화려함을 더했다.

최대 길이 4.8m, 너비 3.6m, 높이 3.1m인 마한 돌방무덤에서 나온 백제계 금동신발은 고대에 영산강 유역과 백제가 교류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됐다.

정촌고분 금동신발을 비롯해 백제 문화권인 곽창 봉터리 고분 금동신발, 신라 무덤인 경주 식리총에서 발견한 금동신발이 한자리에서 공개된다.

국립나주박물관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와 함께 정촌고분을 본격적으로 조명한 첫 기획전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 마한사람들, 큰 무덤에 잠들다'를 8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연다고 밝혔다.

정촌고분은 금동신발로 유명하지만, 독특한 구조로도 잘 알려졌다. 돌방무덤을 비롯해 옹관묘, 석곽묘(石槨墓·돌덧널무덤) 등 무덤 14기가 고분 하나에 있는 이른바 '아파트식 고분'이다.

정촌고분에서 출토한 문화재 200여점을 중심으로 꾸민 전시는 4부로 구성된다.

제1부에서는 사적 제404호로 지정된



나주 정촌고분 금동신발

복암리 고분군과 정촌고분 발견 과정을 설명하고, 제2부는 마한의 독특한 문화로 언급되는 아파트식 고분을 소개한다. 이어 제3부는 금동신발이 나온 정촌고분 제1호 돌방무덤을 재현해 선보인다. 곽창, 경주의 금동신발 외에도 무령왕릉



정촌고분전 외리도깨비전.

/국립나주박물관 제공

은제막잔, 부여 외리 문양전(文樣塼·무늬벽돌)을 전시한다.

마지막 제4부 주제는 현대기술, 고고학에 법의학, 곤충학, 금속공예 등 다양한 학문을 접목해 거둔 성과를 살펴본다. /연합뉴스

아시아문화상 수상작 '전쟁의 슬픔' 무대에 ACC, 11일까지 창제작 워크숍·내년 10월 초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 아시아 현대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새로운 형식의 융복합 공연을 선보인다.

ACC와 ACI는 제2회 아시아문화상 수상작가인 베트남 출신 바오닌의 대표작 '전쟁의 슬픔'을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창작하기 위한 워크숍을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6일 동안 전당 ACT 스튜디오에서 개최하고 있다.

문학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대표 콘

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창작작 시도다.

워크숍은 오랜 연극인류학 전통과 공동체 연극 창작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극단 오딘극단(덴마크)과 진도씨김국 연희페와 광주 지역 극단 등 국내 창작진과 협업으로 진행된다. ACC와 ACI는 오는 10월 발표할 워크숍 결과물을 바탕으로 공연계획을 수립, 내년 10월 ACC에서 개최되는 제3차 아시아문화페스티벌에서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이연수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신문을 살려야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 전남매일 광주 시내지국 현황

| | |
|---------------------------|---------------------------|
| ■ 동구 | ■ 북구 |
| 중앙 223-2378 010-3635-1195 | 운암 525-3761 010-6886-3761 |
| 충장 233-4123 010-7755-8824 | 양산 574-3745 010-2646-3205 |
| 학운 225-0651 010-3640-2454 | 오치 261-9461 010-3629-0146 |
| ■ 서구 | 문흥 261-9462 010-7601-4480 |
| 광천 374-2126 010-9602-2565 | 일곡 573-3200 010-9273-0105 |
| 쌍촌 372-6659 010-6636-2775 | 두암 264-7074 010-2684-6091 |
| 화정 381-2156 010-4235-0902 | 중흥 433-1503 010-4601-2080 |
| 상무 372-7625 010-5013-3889 | 북부 222-2524 010-2656-4543 |
| 풍암 681-3179 010-6634-5084 | ■ 광산구 |
| ■ 남구 | 첨단 971-7374 010-3613-2312 |
| 봉선 653-1920 010-9474-0212 | 신가 952-4864 010-3648-2549 |
| 진월 653-6900 010-5662-7449 | 월곡 952-1687 010-3612-1687 |
| 월산 010-8245-1625 | 우산 951-9954 010-5018-0024 |
| 남부 651-1833 010-2943-8016 | 수완 959-1414 010-3101-2526 |
| 송하 010-8620-1925 | 송정 941-7070 010-3976-0123 |
| | 혁신 010-4623-9622 |

■ 전남매일 시·군 지사 현황

| | | |
|---------------------|--------------------|--------------------|
| 광산지사 010-3601-1102 | 담양지사 010-4154-8277 | 영암지사 010-4624-8409 |
| 목포(갑) 010-3272-2765 | 곡성지사 010-6764-6100 | 무안지사 010-3621-8989 |
| 목포(을) 010-3635-6777 | 구례지사 010-5431-4006 | 함평지사 010-3773-2522 |
| 목포(병) 010-9359-1648 | 고흥지사 010-9151-2828 | 영광지사 010-8666-2882 |
| 여수지사 010-8648-1236 | 보성지사 010-5259-6441 | 장성지사 010-3666-1300 |
| 순천지사 010-2547-7890 | 화순지사 010-3666-5888 | 완도지사 010-5619-7020 |
| 나주(갑) 010-6401-9370 | 장흥지사 010-3613-6114 | 진도지사 010-3624-4777 |
| 나주(을) 010-3713-7458 | 강진지사 010-6646-1241 | 신안지사 010-4627-1472 |
| 광양지사 010-2630-1628 | 해남지사 010-8181-2627 | |

M 전남매일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대표전화 062) 720-1000 / 구독신청 및 배달문의 062) 720-1098
팩스 : 월간국·관리국·사업국·판매국·광고국 062) 720-1020 / 편집국·기사제보 062-720-1080-82
이메일 편집국 : jndn@chol.com 관리국 : jsm7139@nate.com 월간국 : jnreviews@hanmail.net
광고국 : jnmi1000@hanmail.net 마라톤대회 : 0518run@hanmail.net 글짓기대회 : peace20090818@hanmail.net